

2. 지역별 문화유산 우수사업 사례

김설하 ■ 감자꽃 스튜디오 연구실장

□ 우리 곁의 삼국시대, 아차산

1. 개요

- 가. 문화유산 : 아차산성(사적 제234호), 아차산일대 보루군(사적 제455호)
- 나. 장소 : 아차산유적지(사적 제234호 아차산성 및 사적 제455호 아차산일대 보루군)
아차산생태공원 일원, 아차산향토자료실, 아차산역사문화홍보관, 한강문화재연구원
- 다. 주체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재)한강문화재연구원
- 라. 목적 : 문화유산 투어 및 생생한 체험학습을 통하여 아차산성 및 아차산 일대 보루군 유적을 홍보하고 활용함

2. 문화유산의 특징

- 가. 아차산성은 삼국시대의 산성으로 돌을 이용해 지어진 산성으로 1997년에 발굴조사가 실시 되었고 그 결과 많은 수의 고구려계 토기류와 철기류, 철제 무기류 등이 출토됨.
- 나. 축조 주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나,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백제와 고구려, 신라가 각축전을 벌였던 역사적인 현장으로서의 의미를 지님.

3. 프로그램

- 가. 아차산역사문화투어
- 나. 아차산역사문화교실
- 다. 발굴조사 체험교실 - “흙에서 찾은 삼국시대”

4. 시사점

- 가. 선사~고대 유적인 아차산성과, 아차산일대의 보루군의 문화유적 콘텐츠를 활용, 스토리텔링하여 아차산 일대의 유적을 답사해보는 <아차산 역사문화 투어>, 아차산 유적과 유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인 <아차산 역사문화 교실>, 직접 유물을 발굴해볼 수 있는 <발굴조사 체험교실> 등 진행.
- 나. 서울 인근에 잔존하는 산성은 긴 시간 한국의 중심도시였던 서울이 가진 역사적인 중요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 유적임.
- 다. 지역 주민들이 집 주변 생태공원으로만 인식하고 있던 아차산이 사실은 삼국 시대부터의 중요한 역사적 장소였고, 그 장소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흔적을 ‘발굴’ 을 통해 찾아내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음.

②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1. 개요

- 가. 문화 유산 :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등록문화재41호)
- 나. 장소 : 동아대학교 박물관, 부산소재 대안학교(참빛학교, 우다다학교, 사과나무학교), 부산대학병원, 동아대학병원
- 다. 주체 : 부산광역시 서구청/ 동아대학교 박물관
- 라. 목적 : 국가등록 문화재 제 41호인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알리며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대안학교·병원·학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2. 문화유산의 특징

- 가. 기존의 임시수도정부청사를 박물관으로 리뉴얼한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
- 나. 근대역사자료관, 임시수도 기념관, 임시수도정부청사를 오가던 전차 전시 등을 통해 일방향적으로 듣고, 보고, 느끼는 단순체험 사업을 극복함.
- 다.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과 연관된 당시대의 교통문화를 알 수 있도록 전시된 전차를 직접 만지고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 퍼즐체험, 미니어처 제작 등 국내 유물 박물관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함.

3. 프로그램

- 가. 상시 프로그램 - 부산 근대 역사를 찾아서
- 나. 토요 프로그램 - 탁본 체험하기, 발굴 체험, 도자기 만들기, 탈 만들기, 퍼즐 만들기, 어린이 박물관 학교 등.
- 라. 대안학교, 병원, 학교 “찾아가는 박물관”
- 마. 학교교육과 연계한 문화유산 이해 교원 직무연수

4. 시사점

- 가. 문화재의 정체성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체험, 체득하게 하는 좋은 계기를 제공함.
- 나. 역사문화 체험에 있어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대안학교 학생, 소아암 환자(유소년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박물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사례임.

③ 나는 성주다

1. 개요

- 가. 문화유산 : 계족산성(사적 355호), 노고산성(대전시 기념물 제19호)
- 나. 장소 : 대전시 권역의 산성과 그 주변
- 다. 주체 : 대전광역시/ 대전문화연대
- 라. 목적 : 계족산성과 노고산성 등 대전지역 40여 곳의 산성을 대전의 대표문화 자원으로 인식·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산성의 도시 대전’ 브랜드 구축.

2. 문화유산의 특징

- 가. 백제시대의 산성 터로 지금은 성벽의 대부분이 허물어져 그 윤곽선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나, 당시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벽을 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나. 계족산성과 노고산성은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 위치로 보아 노고산성이 계족산성의 전초기지로서 금강의 수로와 사이의 도로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짐작됨.

3. 프로그램

- 가. 나는 성주(城主)다. 산성탐험대
- 나. 1박 2일 가족 산성캠프
- 다. 산성 톡, talk

4. 시사점

- 가. 가족 단위의 산성 탐험대를 조직하여 산성을 즐겁게 만날 수 있는 놀이형 체험, 조사탐험, 기록의 방식으로 진행함. 특히 참여 대상을 학생과 부모 1인이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함으로써 하루의 체험 활동으로 얻은 역사유적에 대한 관심이 이후 가정에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프로그램 참여자가 자신이 산성의 주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나는 성주(城主)다. 산성탐험대’는 스스로 산성의 이야기와 가치를 찾아가는 ‘주체형 체험 학습’으로 지역과 가족의 지킴이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산성캠프’는 산성에 대한 학습, 야간 백제 군사 미션 훈

런, 성벽 기, 봉수체험, 트레킹 등에 참여하면서 ‘산성’과 연계된 내용들을 놀이처럼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음.

라. 일회적인 체험에 그치지 않고, 참가 어린이 및 가족들이 만들어 낸 결과물을 가지고 세미나와 사진전 등을 개최하여 결과를 기록하고 공유함.

4 백 년의 빛, 천 년의 소리를 찾아서

1. 개요

- 가. 문화유산 : 울기등대 구 등탑(등록문화재 제106호)
- 나. 장소 :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울기등대 일원(대왕암공원 내)
- 다. 주체 : 울산광역시 동구
- 라. 목적 : 근대화의 기원이 되는 대표적 역사자원인 ‘울기등대’의 가치 재발견, 참여와 체험을 통한 문화재의 의미 재정립.

2. 문화유산의 특징

- 가. 울기 등대와 대왕암, 화암추 등대와 솔도, 바다가 합쳐진 문화재 콘텐츠를 연계함.
- 나. 근대화의 기원을 찾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침략자의 의도를 느낄 수 있는 극일 교육과 천년 고도 신라의 소리를 동시에 접함으로써 역사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를 지님.
- 다. “러-일 전쟁의 승리로 일본 제국이 동아시아 패권을 잡는 과정에서 빼앗긴 우리 땅에서 울산 해전을 지켜보는 조상들의 모습을 떠올린다”는 내용으로 스토리텔링.

3. 프로그램

- 가. 등대체험 - 100년의 빛을 찾아서
- 나. 문화어울림 한마당 - 백년의 빛과 천년 소리의 만남

4. 시사점

- 가. 지역 내 잊혀져가는 근대 유산을 방치하지 않고 관광자원으로 인식, 새로운 시각에서 상품화하는 선진 문화마케팅 능력과 프로그램 기획력을 발휘함.
- 나. 전자향해보조기구의 등장으로 사라져가는 등대의 역할을 인문학적 접근으로 재해석, 등대에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함.
- 다. 선박가상시물레이션과 4D 영상체험 등대탐방 등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해양 문화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동시에 그 이면에 얹혀 있는 이야기를 통해 역사까지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프로그램을 추구함. 프로그램 참여자의 감각과 감성 모두 풍부하게 해줄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님.

⑤ 역사 속 전통 농사와 종택의 만남

1. 사업 개요

- 가. 문화유산 : 군포 동래정씨동래군파 종택(경기도 문화재자료 제 95호)
- 나. 장소 : 경기 군포시 속달마을 및 종택 일원
- 다. 주체 : (사)전국귀농운동본부
- 라. 목적 : 유형의 문화유산(동래군파 종택), 무형의 문화유산(전통농사), 기록 문화유산(서유구의 『임원경제지』)의 의미와 가치를 발굴,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유산 체험 기회 제공

2. 문화유산의 특징

- 가. ‘종택’이 지닌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전통 농사’ 체험의 결합으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함.
- 나. 종택 본가라는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가족, 지역 네트워킹을 통한 주말 농장과 귀농에 관심 있는 청장년층의 참여도가 높음.
- 다. 종택 본가를 근간으로 전시실을 마련하고, 정난중 선생 묘와 신도비 묘역 등과 공간적으로 연결하는 등 연계 확장 가능

3. 프로그램

- 가. 자연유산 위에 써내려가는 생태적 문화유산 이야기 ‘임원경제지 속 전통농업 오감 체험’

4. 시사점

- 가. ‘종택’과 ‘전통농사’라는 유·무형 문화재의 조화를 이루어냄으로써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나. 특히 전통농사법에 대한 사계절 체험과 종택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등 문화재와 함께하는 생태체험학습이 가능한 수 있을 것임.
- 다. 또한 종택의 역사성 및 문화적 보존가치 등 의미 있는 이야깃거리들을 발굴, 스토리텔링한 콘텐츠가 프로그램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면 인문학적으로도 깊이 있는 체험이 가능해질 것.

⑥ 목판본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

1. 사업 개요

- 가. 문화유산 : 원주고판화박물관 소장 강원유형문화재 151호 안심사판 제진언집, 152호 덕주사판 불설아미타경, 153호 용천사판 불설아미타경, 154호 안심사판 옥추보경, 146호 만연사판 중간 진언집, 147호 불정심다라니경, 148호 예념미타도량참법
- 나. 장소 : 치악산고판화박물관
- 다. 주체 :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고판화박물관
- 라. 목적 : 강원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고판화 박물관 목판본 삽화를 역사·문화 교육자원으로 활용, 국내에 하나뿐인 고판화 박물관을 전통판화체험교육의 메카로 육성함.

2. 문화유산의 특징

- 가. 고판화박물관은 2004년에 개관, 한국·중국·일본·티벳·몽골·인도·네팔 등 판화가 발전되었던 동양 각국의 고판화 자료들을 수집, 보관, 전시, 연구, 교육하는 곳임.
- 나. 총 3,5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고판화박물관임. 큰 규모는 아니지만 오륜행실도의 목판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직지심경 판본 등 가치가 높은 문화재들을 소장하고 있음. 그 중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임.
- 다. 목판화는 인쇄술의 기본이 되므로 고판화박물관의 문화유산들은 의미와 가치를 지님.

3. 프로그램

- 가. 목판본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학생/ 일반시민/ 문화소외계층)
- 나. 지정문화재(목판본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전문가집단)
- 다. 한·중·일 목판본 국제학술대회

4. 시사점

- 가. <목판본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는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치악산 고판화박물관 소장 목판본 삽화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과 학술대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학생, 일반시민 및 문화소외계층,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15~16회에 걸쳐 판화에 대해 알아보고, 고판화박물관에 대

한 설명을 듣고, 전통판화를 체험해 보고, 책을 만들어 보는 순서로 진행됨.
나. 학생, 일반시민, 전문가 뿐 아니라, 직업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이유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이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점은 문화재 활용 사업이 지역의 문화향유를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㉞ 조선의 도시로 가자 - 나주 달빛에 취하고 쪽빛에 물들고

1. 사업 개요

- 가. 대상문화재 : 나주읍성(사적 제337호), 나주목 관아와 향교(사적 제483호), 남파고택(중요민속문화재 제263호), 나주목사내아(도 문화재자료 제132호), 정수루(도문화재자료 제86호),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 나. 장소 : 나주읍성권(나주 도심),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전수교육관과 소재 명하쪽빛마을(2011년 농촌관광테마-쪽천연염색 마을)
- 다. 주체 :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문화원
- 라. 목적 : 오래된 역사도시의 가치를 활용하여 도시 매력을 창출하고 지역을 재생함.

2. 문화유산의 특징

- 가. 나주는 조선의 도시계획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고도로, 도시 전체가 조선의 도시 철학과 통치 정신을 공간을 통해 학습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재·역사교육 공간.
- 나. 조선시대의 도시 행정, 교육기관, 민가를 보존 및 복원하고 있는 지역 장점을 고려, 각 문화재(목사 관아, 객사, 향교, 성곽 등)의 개별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문화재의 정체성들이 모여 조선의 정신을 상징하도록 기획함.
- 다. 쪽염색은 근대 이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재로서 유일하게 나주 지역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공존하고 있음. 나주는 전통 쪽염색을 배울 수 있는 교육 공간임.

3. 프로그램

- 가. 조선의 도시로 가자 - 나주 달빛에 취하고 쪽빛에 물들고

4. 시사점

- 가. 도시사를 공부하는 학생은 물론 공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건축 및 공간 디자인 등의 영역에서 한국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됨(나주의 문화재는 도시 공간에서의 건축물 자체도 매우 우수하고, 이들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이와 더불어 개화기의 공장 및 일식 건물까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조선 시대와 그 이후의 공간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음).
- 나. 각 공간을 이동하면서 개별 특이점을 확인하고, 그 공간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함. 성문에서의 축문을 읽는 체험, 향교에서 족자에 붓글씨를 써보는 체

험, 목사 관아에서 나주의 음식과 풍류를 즐기는 체험, 쪽염색 체험 등 공간에 적합한 각 프로그램들은 참여자가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기획이 이루어져야 함.

⑧ 500년의 역사 '원시어업 대나무어사리(죽방렴)'

1. 사업 개요

- 가. 문화유산 :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명승 제71호)
- 나. 장소 : 남해군 지족마을
- 다. 주체 : 경남 남해군/ 경남발전연구원
- 라. 목적 :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 활용, 원시어업 체험을 통한 문화재 홍보 및 관광자원발전.

2. 문화유산의 특징

- 가. 지족해협 죽방렴은 500년 전 옛 선인들이 거센 물살을 이용해 고기를 잡던 방식으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어업활동임.
- 나. 원시어업인 대나무어사리의 체험을 통해 옛 선조들의 지혜와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임.

3. 프로그램

- 가. 500년의 역사 '원시어업 대나무어사리'(죽방렴)

4. 시사점

- 가. 오랜 역사를 가진 선조들의 생업활동이 오롯이 원형으로 남아 있는 곳은 제주도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몇 군데 없는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그 희소성과 희귀성이 체험형 프로그램과 결합하게 되었을 때 높은 교육적 가치를 창출함.
- 나. 죽방렴 체험과 연계한 야간 낚시나 새벽의 해바리 체험 등은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높음.
- 다. 인근 지역의 '남해유배문학관'과 '관음포 전몰유해지' 답사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⑨ 제주도민과 함께 하는 칠머리당 영등굿

1. 사업 개요

- 가. 문화유산 :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칠머리당영등굿
- 나. 장소 : 제주도 일원 및 무형문화재전수관
- 다. 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 라. 목적 : 전통 문화유산(제주는 당굿의 고장으로 오랜 옛날부터 본향당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왔는데, 이때 본향은 공동체의 생산과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신으로서 마을의 정신적인 구심체 역할을 함. 따라서 당굿은 삶의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콘텐츠로 개발하여 교육자료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함.

2. 문화유산의 특징

- 가. 제주 칠머리당영등굿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며 무형문화재로 일반인들이 그 본령을 체험하기는 쉽지 않지만,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고 본향당 뿐 아니라 곳곳에 당굿과 관련된 시설(천제단 등) 및 장소가 존재함.
- 나. 현재 시점에서도 제주인의 일상에 깊숙히 새겨져 있는 영등굿은 제주를 이해하고, 제주만의 특성을 드러내기에 적절한 콘텐츠임.

3. 프로그램

- 가. 찾아가는 칠머리당영등굿 <본향당신의 품에서 놀아보기>
- 나. 제주전통문화강좌 <궐~낭들~랑 열~두당~번 연물 장단에 오금이 절로 논다!>
- 다. 영등할망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해신당 기행 <영등할망 보름길 걷기>

4. 시사점

- 가. 제주굿의 원형을 가공하지 않고, 영등굿이 지닌 신화적 이야기와 상징성, 공연 예술적 요소를 교육 프로그램의 중심 내용으로 함. 영등굿과 관련된 장소(현장)를 찾아가면서 굿의 전체적인 흐름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탐방>, 영등굿에서 사용되는 <악기와 가락, 춤 익히기>, 여러 기매(굿상에 오르는 여러 상징물들)를 직접 만들고 영등굿의 신화 이야기를 토대로 극을 만드는 <연극놀이> 등 세 가지 범주로 기획됨.
- 나. 제주를 삼다(바람, 돌, 여자)와 삼무(도둑, 거지, 대문)와 함께 삼보(자연, 민속, 언어)라는 특징이 있음. 삼보 중 ‘자연’은 일반 관광으로도 느낄 수 있지만

‘언어’는 제주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면 체험이 어려우며,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진 ‘민속’은 제주의 가치를 이해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요소임.